

# 저신용층에 정책대출 매년 1兆 공급

### 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발표 7~10등급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 신설 현행 서민정책금융상품 금리는 상향 조정 10% 초중반대 민간증금리대출 활성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이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민간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중신용자 이용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캐드립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

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중신용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금리 수준은 최대 10.5%로 낮춤에 따라 신용도가 좋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받으면서 저신용층은 20%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4대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 지원비율은 61.9%에 이르는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완전히 새로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정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이

큰 '바캐드립론'을 통합해 출시한다.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준다는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시장 이용이 용이한 중신용자의 정책상품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민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가 8~10%대에 집중돼 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대신 큰 부담없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10% 초중반대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수급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최근 공급량 수준(7조원)으로 유지하되 최대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 특화 신용조회회사(CBS)' 인가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거래 실적 위주의 현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신과일터(Thin File·금융거래 정보가 적어 신용등급을 낮게 받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중신용자나 연체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통신요금, 세금납부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 각종 정성적 정보, 성실상환이력 등을 활용하는 서민금융 특화 CBS를 출범시켜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대출한도 등을 비교해주고 복지, 금융 교육 등 비(非)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인물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 농업 혁신부문 대상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 축협 경영인부문 대상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전북도 인물대상'에서 농업 혁신 부문 대상에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이, 축협 경영인부문 대상에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이 각각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은 상호금융 여수신 1조원을 돌파하며 취임당시 여수신 규모의 10배 가까운 업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9월 농협중앙회의 '지도사업종합평가'에서 도시형 농협부문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정읍농협하나로마트 개장 후 1년 만에 5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대성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400억대를 유지하며 농업인과 시민들의 든든한 장터를 굳히는데 일익을 도모했고 독거노인과 장애우 무료점심도시락 제공을 10여년간 해 오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은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참여우 브



유남영 최기환

랜드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국가 명품인증을 받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소비자 시민모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는 등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참여우 브랜드 육성 및 축협의 역할·위상 제고를 이끌면서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에 기여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노사화합 '앞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북본부는 지난 20일 지역본부에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중앙회, 은행, 보험 등 통합청사 내 입주해 있는 전 법인 간 노사 화합 증진을 위해 '하나 되는 전북농협 Hof&Hope Day' 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박병철 위원장 주관으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지랑, 직원간 화합한마당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사업추진, 농촌 일손 돕기 등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원들의 피로를 잠시나마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박병철 NH농협지부 전북본부위원장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법인 간 상생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북본부는 지난 20일 지역본부에서 노사 화합 증진을 위해 '하나 되는 전북농협 Hof&Hope Day' 행사를 개최했다.

## 전북개발공사 제4대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추가 5명 위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5명을 추가 위촉하여 내부위원 10명, 외부위원 10

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신규사업 다각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있으며 주택·신재생에너지·경제·회계 등 4개 분야에 학식,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다.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전문가 4명을 새로

위촉, 여성위원 비중을 40%까지 높였다. 한편, 임명된 위원들은 공사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기본구상 타당성, 원가 분석, 시장전망 분석 등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방제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 쾌거 이뤘다

### 전북농협공동방제사업단, 농업인 소득제고·건강증진 기여 인정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농협공동방제사업단(대표농협 황등농협·남산농협·서익산농협·망성농협·왕궁농협·북익산농협·남원농협·춘향골농협·하서농협·황토현농협·정읍농협)은 2018년에 경기도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약 20,000ha의 수도작 농지를 대상, 무인헬기 농약살포를 대행하여 농촌일손부족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 평가하는 '2018년 방제사업부문'에서 전국 1위 달성, 표농협인 황등농협이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무인헬기 방제부문에서는 전북농협 공동방제사업단에 소속된 5개 농협(하서농협·망성농협·정읍농협·춘향골농협·남산농협)이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

전북농협 공동방제사업단은 2016년도에 적기방제가 어려워 방제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인헬기 단독 방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투철한 농협들이 뜻을 모아 구성된 농협공동방제사업단이다.

특히, 2019년에 시행되는 PLS제도에 맞춰 전북농협 공동방제사업단(이하 품품방제단)만의 방제 메뉴얼을 제작, 방제 시행농협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춘재 공동방제사업단(품품방제단) 황등농협단장은 "우리 방제단이 무인헬기 조종에 최고라고 할 순 없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품품하게 방제하는 점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오랜 시간 기여할 수 있는 방제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QR코드
- 편의점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